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6년9월1일 (목) 제 755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원)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김성제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길을 찾아서

<예레미야 애가 3:40-42>



정수환 목사 (사회위원장 / 도요하시교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권리” 등 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매년 9월에 인권주일을 설치하여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는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인권문제와 관계해 왔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권” 이라는 것에 대하여 차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렵히 그러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적당히 보상받으며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편견과 차별에 저의 인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인권이 결코 당연히 보상받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저의 무지와 생각이 모자라는 것이 타인의 인권을 가볍게 여겨 왔다고 통감합니다.

1923년 9월1일 11시58분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날 저녁 이후에는 “조선인이 살인, 방화,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나갔습니다. 3·1운동 이후 조선 독립운동과 재일 조선인 노동 운동이 고양되면서 조선인을 위협 인물로 보고 있던 일본 관헌은 지역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조선인 폭동 유언비어를 사실과는 다르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산하게 된 것입니다. 지진 다음날 부터 계엄령이 선포되고, 출동한 군대는 각 지역에서 조선인을 잡아 죽이고, 각 지역마다 군인회, 소방단 등으로 자경단을 조직하여 같은 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국가가 내린 계엄령은 자경단의 위기의식을 높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정당화 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조선인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권력에 의해 사람의 생명을 주저없이 빼앗아 버린 것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재일분한국YMCA 2·8독립선언 기념 자료실에서)

지난 7월29일 카나가와현립(神奈川県立) 장애자 지원시설 『즈쿠이 야마유리원』에서 전(前) 직원에 의해 많은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심야 시설에 침입하여 저항능력이 없는 취침중의 이용자들 생명에 대하여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전에는 중의원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 범행을 실행한다는 것을 기록했으며, 흉악범은 조치

를 당하고 입원도 했지만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범인이 기록한 내용은 타인에 대한 생명의 존엄도 인권도 돌아보지 않는 독선적 생각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도와 관심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유력한 정치가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개인의 범행이라고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자라난 환경과 정신 상황을 찾아낸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인간 속에는 타인의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있는 한.

본문은 애가 제3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와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인물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지만,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단순하게 건물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애가의 통곡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금 그 얼굴을 백성들을 향하시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라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생명과 인권에 대하여 어느정도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의 일로 말한다면 자신의 가족, 절친이 상처를 받았다면 “인권”의 소리만 내는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갑니다. 자이니치(在田)가 이세부터라도 마이너리티로서 자기의 길을 찾아 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올리면서, 그러한 우리가 걸어온 길이 혼자 잘나서 가는 길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자신의 인권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의미를 깨닫고 계속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016년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 개최

주제:교회 개혁 -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부제:지금 KCCJ에 요구되는 것은?

2016년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가 지난 7월18일~20일에 동지사 비와코 리트리트센터에서 『교회 개혁-종교개혁 500년을 앞두고』라는 주제하에 모였다. 전국교회에서 60명의 교역자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강사로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총무로 활약하고 있는 금주섭(琴周燮)목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총회 기구개혁준비위원회에 의한 『KCCJ의 기구개혁의 과제』에 대한 발제와 분단토의 등을 가지는 귀중한 연수회였다.

18일은, 개회예배(설교 김성제총회장)후, 『변혁적 제자도로서의 선교와 예언자적 소수자의 사명』의 제목을 가지고 강사 금주섭목사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금주섭목사는 청년시절 부터 EYC(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제일 청년들과 교류하였던 경험이 있으며, 작년에 개최되었던 『제3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에는 WCC및 세계교회와 연결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종교개혁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WCC 본부에서 세계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KCCJ의 선교적 의의와 역할에 대한 강연을 통하여 마이너리티교회라 할 수 있는 KCCJ에 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강연에서 금목사는 『“저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비록 소수이고 한국의 대형 교단들처럼 막대한 자금과 교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계교회와 선교를 위해 들어 쓰신다는 모든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지닌 창조적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변혁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디아스포라 교회인 KCCJ교회를 『남은 자』라고 정의하면서 『“남은 자들”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뒤에 버려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 받은 제자들로서 이땅에 참된 교회의 수립과, 민족의 화해, 일본의 선교와 복음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땅의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선택 받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 선교의 사도들입니다. 그 선택 받은 사도들로 여러분에게 변혁적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예언자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라며 강연을 마



쳤다.

19일에는 아침기도회(설교:최춘자목사)부터 시작하여 김성효목사로 부터 『피재지 쿠마모토』 보고를 듣고 피재지 지원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과 지진피해를 입은 쿠마모토교회당 및 목사관 수리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였다.

작년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설치된 총회 『기구개혁 준비위원회』(위원장:이근수목사)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대권』에 관하여는 나카에요이치(中江洋一)목사가, 『재정』에 관하여는 김성원장로, 『조직』에 관하여는 이근수목사가 각각 발제하고, 오후에는 이 발제를 듣고 분단토의 나누어 토의 하고 또한 종합 토의를 가졌다. 이 발제와 분단 등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기구개혁 준비위원회가 수렴하여 내년(2017년) 10월에 개최되는 제54회 정기총회에서 미래를 향한 KCCJ에 적합한 개혁안이 제안되기를 바란다.

저녁집회는 김중현목사를 강사로, 영적 은혜를 받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룹 기도회도 가졌다. 20일에 폐회예배(설교:김필순부총회장)를 가진후 폐회하였다.

연수회 준비와 진행을 맡아 수고한 교육위원회(위원장:김명균목사)와 총회의 중요한 과제를 짚어지고 애쓰고 있는 기구개혁 준비위원회(위원장:이근수목사), 특히 먼 곳에서 주제강연을 위해 오신 금주섭목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제강연 내용은 복음신문에 연재하여 올릴 계획임.



알림

●주소 변경

鄭在植牧師 : 〒751-0874 山口県下関市秋根新町7-7-301
電話番号 : 083-277-0756
東京緑洲教会 : 〒115-0051 東京都北区浮間3-33-23-205
郭京煥牧師 : 〒115-0052 東京都北区赤羽北3-26-5-1105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 :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 : 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ゴ・カヤガム・舞踊) ◆韓国語講座 ◆各種こ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川西교회와 西宮제자교회 합병 이중재목사 위임식도 함께 거행



서부지방회에서는 가와니시(川西)교회와 니시노미야(西宮)제자교회가 합병되어 새롭게 가와니시(川西)교회로 출발하였다. 서부지방회 부회장 한세일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합병식과 목사 위임식은, 이성우목사가 '서로 짐을 지라' (갈6:2) 라는 제목으로 양 교회가 하나되는 합병식에 적합한 설교를 하였다. 이어서 지방회장 김승희목사의 사식아래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보고, 합병서약 및 합병선언이 있었고, 합병된 가와니시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이중재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가와니시교회는 1930년 이케다(池田)전도소로 설립되어 금년에 86주년을 맞이하는 역사 깊은 교회이며, 니시노미야제자교회는 2006년 이중재목사에 의해 개척 설립된 새로운 교회였다. 가와니시교회를 목회 해 왔던 박두희목사가 사정으로 사임하게 됨으로 양 교회의 합병 논의가 있어 지난 2016년4월29일 서부지방회 정기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서부지방회로 부터 가와니시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이중재목사는 1963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목포해양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전주대학 선교대학원 등을 수학과 1998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04년 부터 선교사로 도일하였으며 2010년4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 부터 정식으로 일본선교사로 파견받아 2011년에 서부지방회에 가입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2녀1남.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와의 협의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와의 협의회를 지난 2016년7월25일(월), 26일(화) 양일에 걸쳐 재일본한국YMCA회의실과 총회사무실에서 가졌다.

이 협의회는 본 총회와 선교협약 관계가 없는 고신 총회에서 일본선교사로 파견 받은 목사가 본 총회에 가입하는 문제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양교단의 선교협약의 가능성을 두고 서로의 교단을 소개하면서 선교적 파트너로서의 교류와 협약을 위한 협의회를 하게 된 것이다.

고신 총회에서는 총회장 신상현목사, 부서기 권오현목사, 사무총장 구자우목사가 참석하였고, 본 총회에서는 총회장 김성제목사, 부서기 김건목사, 선교위원장 정연원목사 및 총간사가 참석하여 가진 협의회는, 양 교단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선교적 과제 등을 소개 및 발제하였고 선교적 협력 파트너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교협약체결을 향하여 진전하는 협의회였다.

고신 교단은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감옥에 갇던 목사들이 해방됨으로 출옥하여 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한국에서는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교단으로 알려져 있

제3회 한일교류회 개최

한국 한신교회와 중부지방회, 중부교구, 킨키중회 중부지구가 합동으로



지난 8월1일~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한신교회에서 18명의 청소년 및 신도를 맞이하여 총44명의 참가자가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한일교회청소년 교류회를 중부지방에서 가졌다.

금년에 3번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그램은 미래 한일의 평화를 구축해 가는 일꾼이 되어야 할 韓,日,在日의 교회 청소년들의 역사 공동학습과 예배 및 교류를 체험하는 것으로 제일대한국교회와 주축이 되어 선교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기독교단, 일본기독교회 및 한국기독교장로회 한신교회의 中高生, 대학생, 청년, 신도를 중심으로 가진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지금까지 교역자들이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 과 달리 주역인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것으로 자주적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첫 날의 개최예배(설교:村山盛芳목사)와 환영회, 둘째 날에는 쿠쿠리(久々利) 군사공장 유적지, 스키하라 치우네(杉原千畝) 기념관 등을 견학, 세째 날은 일본기독교단 나고야교회에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한일 합동예배(설교:송주용목사) 등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박4일 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평화와 화해, 공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심도 있는 교류가 된 것을 감사하며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본의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예정이다. (보고: 고성목사)

며 1952년에 정식 설립된 교단이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외부와의 교류를 꺼려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심스럽게 해외교회와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40년 전에 분리되었던 고려파 교단과 전격적인 통합을 하였고, 일본에는 일본개혁파 교단과 선교협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적교류, 프로그램 교류와 재정적 협력 및 정기 간행물 교환 등이 잇수로 토의되었으며 협약체결을 위하여는 이번에 논의되었던 사안을 양교단의 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논의하여 2017년 2월21일에 한국에서 다시 한 번 실무협의를 거친 후에 양 교단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차세대 피스빌더 육성프로그램 실시

보고 : 김성태목사(호주 유학중)



아시아의 “평화(shalom)”을 위해 일하는 청년대사(Young Ambassadors)를 육성 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YAPA program)이 6월12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본부가 있는 치앙마이(태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아, 홍콩, 대만, 한국, 일본(KCCJ만 참가) 등 13개국에서 28명의 청년이 참가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각자의 나라의 분쟁과 갈등 등 평화를 빼앗긴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자신의 맥락(context)에서의 평화실현을 위해 모색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소수민족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받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 설사 표현했다 해도 압도적인 폭력으로 진압을 당해 버린다는 점이였다. 한편 일본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필자가 “일본에서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발표하자 세계적으로 친절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알려진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참가자가 많았다. 또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상황과 비교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타자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의 자유까지 용납이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는 분석적인 반응도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는 6명의 강사들의 평화에 관한 강의의 시간이 있었다. 그 중 수잔 제이콥스(CCA커뮤니케이션 자문위원)은 평화와 정의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정의와 평화는 서로 나눌수 없고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강사인 알피누스 캄보디 박사는 평화는 인간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사이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캄보디 박사는 피조물간의 평화의 필요성을 참가자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워크샵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YAPA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서 앞으로 어떤 액션을 일으킬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아시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협력과 연대로 이루어가는 에큐메니칼운동에 주력하고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CCA는 참가자들이 일주간의 단기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시아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또한 CCA는 5년 이내에 이러한 청년평화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구마모토 소식 ~피해지 지원활동에 계속 기도를~

재일대한기독교회 여러분

구마모토 지진피해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진직후 KCCJ구마모토 지진피해지원 프로젝트위원회 지원을 받아 김성효목사는 현지 스태프로 피해지에 ‘카페 데 몽쿠(경청카페)’를 열어, 아직은 미비하지만 지원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피난소로 되어 있는 미후네마찌(御船町) 스포츠센터(8월2일 현재 약170명)에서 매주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4시 까지 드림카페를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와 협력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일상생활과 삶의 거주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장래가 불안한 상태에서 긴 피난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림카페는 「길거리 카페」라는 개념으로 가능한 맛 좋은 커피와 어울리는 과자류와 함께 카페 점장과 점원들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귀

와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교류의 장으로 개인 젓가락 만들기, 팔찌등을 만드는 등 어린이 부터 어른에 이르기 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선된 커피 콩을 직접 갈아서 더 깊은 맛의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난소에서 지내고 있는 이들은 드림카페를 즐기고 있으며, 개점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난소의 생활을 거부하던 어떤 여성은 이런 멋진 카페가 있는 곳에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해 주었을 때 저희들도 너무 기쁩니다. 하루에 냉커피를 포함하여 120잔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피난소는 9월말에 폐쇄되며, 이후로는 응급 가설주택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KCCJ구마모토 지진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 위원회와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가 공동으로 KCCJ구마모토교회를 자원봉사 센터 「희망의 구마모토-엘피스 구마모토」개설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원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김성효목사)



▲큐슈교구에서 우메사키 총회회장 및 임원들이 자원봉사에 참가하였습니다